

# 불상·불화에 있어 복장물의 의미 (佛像·佛畫에 있어 腹藏物의 意味)

洪潤植

<圓光大學校 教授>

## 一. 서언(序言)

불탑(佛塔)에서 사리(舍利)와 사리용기(舍利容器)가 발견(發見)되었다고 하면 하등(何等)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불탑(佛塔)이란 불사리(佛舍利)를 장치하는 시설물(施設物)임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상(佛像)이나 불화(佛畫) 등에서 사리(舍利)가 나왔다고 하면 그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고 있음을 본다. 즉(卽) 불상(佛像)이나 불화(佛畫)등에 사리(舍利) 등 기타의 신앙물(信仰物)을 넣는 것을 복장(腹藏)을 넣는다고 하지만 복장(腹藏)에 대한 정확한 견해(見解)가 아직 밝혀져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간혹 우리는 불상(佛像) 불화(佛畫) 등에서 복장물(腹藏物)이 발견(發見) 되었다는 소식(消息)에 접(接)하게 된다. 그러면 황급히 그들 복장물(腹藏物)에 대한 학술적(學術的)인 조사(調査)를 하게 되지만 그럴 때마다 아쉬움을 느끼는 것은 복장물(腹藏物) 전체(全體)에 대한 종합적(綜合的)인 조사(調査)가 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즉(卽) 복장물(腹藏物)이 발견(發見) 되어지면 우선 복장(腹藏)으로서 갖추어야 할 복장물(腹藏物)이 모두 갖추어져 있는가를 살펴야 하고 나아가 이들 각(各) 복장(腹藏)이 지니는 종합적(綜合的) 의미(意味)를 파악하여야 하는데 지금까지의 복장물조사(腹藏物調査)는 복장물(腹藏物) 개개(個個)를 파악하는데만 정신이 쏠렸지 전체(全體)를 파악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실(實)은 복장물(腹藏物)중에 무엇이 없어졌는지 또한 있어서는 안될 것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전연 검토되지 않은 채 복장물(腹藏物)이 논의(論議) 되어졌던 것이라 하겠다.

불교미술(佛敎美術)에 있어 복장물(腹藏物)은 그 하나 하나가 중요(重要)한 의미(意味)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뜻이 아니라 개체(個體)도 중요하지만 전체(全體)의 의미(意味)를 알게 될 때 개체(個體)로서는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임을 알게된다.

불상(佛像) 불화(佛畫) 등에서 살필 수 있는 복장물(腹藏物)은 우선 그 조성연대(造成年代)와 조성(造成)에 관계하였던 사람들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불상(佛像) 불화(佛畫)가 신앙(信仰)의 대상(對象)이 되게 하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는 갖가지 신앙물(信仰物)이 들어가게 된다. 그리하여 불교미술(佛敎美術)에 있어 복장물(腹藏物)이 차지하는 의미는 우선 복장물(腹藏物)로서의 물건자체(物件自體)가 지니는 미술적(美術的) 의미(意味)도 중요하지만 이들 복장물(腹藏物)이 지니는 내면적 의미는 불교미술(佛敎美術)에 있어 복장(腹藏)은 불교

미술(佛敎美術)을 예배(禮拜)의 대상으로서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게 하는데 참뜻이 있는 것임을 알게 하고 따라서 복장물(腹藏物)의 변천은 불교미술(佛敎美術)의 내면(內面)의 변천임을 알게 해준다는 데서 중요하다. 그리하여 넓은 의미(意味)에서의 복장(腹藏)은 불탑(佛塔)의 사리(舍利)장치도 포함시킬 수 있으나 여기서는 불상(佛像) 불화(佛畵)의 복장물(腹藏物)에 국한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二. 복장의 기원과 변천(腹藏의 起源과 變遷)

### 1. 복장의 연원(腹藏의 淵源)

불상(佛像)이나 불화(佛畵)등에 언제부터 복장물(腹藏物)을 넣게 되었는가는 분명(分明)하지 않다. 복장물(腹藏物)에 대한 제반의궤(諸般儀軌)라 할 수 있는 조상경(造像經)이 있어 그 연원을 조상공덕경(造像功德經) 관불삼매경(觀佛三昧經) 제경요집(諸經要集) 속상경(俗像經) 아육왕경(阿育王經)을 인용(引用)하여 밝히고 있으나<sup>1)</sup> 이는 후대인(後代人)들이 불상(佛像)의 공덕(功德)을 경전(經典)에서 인용(引用)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으므로 그것이 곧 불상복장(佛像腹藏)에 대한 연원(淵源)을 밝힌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한편 복장이입(腹藏移入)의 실제적(實際的) 사실(事實)은 경남(慶南) 산청군(山淸郡) 삼상면소재(三狀面所在) 내원사(內院寺)의 신라석불(新羅石佛)의 복장물(腹藏物)에서 살필 수 있어 일찍이 신라시대(新羅時代)부터 불상(佛像) 등의 신앙물(信仰物)에 복장물(腹藏物)을 이입(移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sup>2)</sup> 그러나 이상과 같이 우리 나라 불상(佛像)의 복장이입사실(腹藏移入事實)이 신라시대(新羅時代)부터란 사실(事實)을 확인(確認)할 수 있게 되지만 복장물(腹藏物)의 변천 사실(事實)을 밝히려 하면 여간 어려움이 따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비록 신라이래(新羅以來)의 오랜 불상(佛像) 등이 오늘에 상당수 남아 있고, 또한 그들 불상(佛像)에서 오랜 시대의 복장물(腹藏物)이 일부(一部) 남아 있다손 치더라도 그 자료(資料)만으로는 복장물(腹藏物)의 변천을 알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신라이래(新羅以來)의 오랜 불상(佛像)이 오늘에 상당수 전(傳)하지만 그 불상(佛像)의 복장물(腹藏物)은 개수(改修)등의 불사(佛事)에 의하여 꾸준히 새로운 복장물(腹藏物)을 이입(移入)하여 왔기 때문이기도 한다.<sup>3)</sup> 즉 연대(年代)가 오래인 불상(佛像)속에는 여러 시대에 걸쳐 복장물(腹藏物)이 이입(移入)되어졌다는 것이다.

### 2. 복장물 품목(腹藏物品目)

불상(佛像)등의 내부(內部)에 넣는 복장물(腹藏物)의 품목(品目)은 시대(時代)가 변천함에 따라 달라졌을 것으로 믿으나 그와 같은 각 시대(各時代)의 복장물(腹藏物)을 살필 만한 확실(確實)한 자료(資料)는 아직 발견(發見)되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부득이 본고(本稿)에서는 『조상경(造像經)』 「제상보살복장단의식(諸像菩薩腹藏壇儀式)」에서 밝히고 있는 복장품목(腹藏品目)의 예(例)에서 그 실제적 사실을 밝혀볼까 한다.

1) 『造像經』 「大藏一覽經 造像品 15則」

2) 永泰 2年 銘蠟石製壺 現內院寺所藏毘盧舍那石佛의 腹藏을 시설하는 容器로 밝혀지고 있음이 그것이다. 釜山直轄市立博物館 年報 第6輯 1983.

3) 上院寺文殊童子像 腹藏物 調査에서 각기 年代가 다른 腹藏物이 發見되고 있음이 그것이다.

洪潤植 「朝鮮前期上院寺文殊童子像」, 考古美術 164號 韓國美術史學會, 1984.

조상경(造像經)이란道光(道光) 4년(1824) 유점사(楡岾寺)에서 간행(刊行)된 것으로 그 연대(年代)는 비록 오래지 않으나 조상경(造像經)의 복장품목(腹藏品目)과 조선초(朝鮮初) 세조조(世祖朝)에 조성(造成)된 상원사문수동자상(上院寺文殊童子像)에서 발견(發見)된 복장(腹藏)의 품목(品目)이 일치(一致)되는 점(點)이 많아 조상경(造像經)이 밝히고 있는 복장품목(腹藏品目)은 오랜 유래(由來)를 지니는 것이라 할 수 있어<sup>4)</sup> 이를 중심(中心)으로 복장품목(腹藏品目)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조상경(造像經)은 먼저 불상(佛像) 등에 복장(腹藏)을 넣게 되는 취지를 자세히 설명(說明)하고 나서 복장(腹藏)에 들어갈 물품(物品)을 일일이 열거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크기와 개수(個數) 넣는 방법(方法)까지 자세히 밝혀 놓고 있다.

복장(腹藏)을 넣는 품목(品目)을 열거함에 있어서는 먼저 복장(腹藏)에 들어갈 품목(品目)을 일일이 열거한 목록(目錄)을 작성(作成)하여 넣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목록(目錄)에서 밝히고 있는 품목(品目)을 모두 복장(腹藏)에 넣는 것이 아니라 많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반드시 들어가야 할 품목(品目)이 있어 이는 따로 밝히고 있다.

그러면 아래에서 복장물(腹藏物) 목록(目錄)과 반드시 들어가야 할 품목(品目) 내지 그 규격, 넣는 방법(方法) 등은 어떤 것인지를 밝혀 보기로 하겠다. 한편 목록(目錄)을 밝히기 전에 복장(腹藏)을 넣게 되는 각품목(各品目)에 대한 뜻을 밝히고 있는 바 먼저 그것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5경(鏡)—직경 1cm 정도로 다음과 같이 금속으로 혹은 종이로 만들어 넣는다.

동(東)—방경(方鏡), 남(南)—삼각경(三角鏡)

서(西)—원경(圓鏡), 북(北)—반원경(半圓鏡)

중(中)—원경(圓鏡)

이 5경(鏡)은 대원경지(大圓鏡智) 평등성지(平等成智) 묘관찰지(妙觀察智) 성소작지(成所作智) 방편구경지(方便究竟智) 등의 다섯 가지 불지(佛智)를 표(表)하는 것이다.<sup>5)</sup>

(2) 5보병(寶瓶)

높이 1cm 의 다음과 같은 보병(寶瓶)을 만들어 놓는다.

동(東)—청색마노보병(靑色瑪瑙寶瓶) 남(南)—황색마니보병(黃色摩尼寶瓶)

서(西)—홍색산호보병(紅色珊瑚寶瓶) 북(北)—녹색유리보병(綠色琉璃寶瓶)

중(中)—백색수정보병(白色水晶寶瓶)

이 보병(寶瓶)은 만법(萬法)을 함용하는 뜻으로 여래(如來)를 비유한 것이며, 보현병(普賢瓶)이라 하기도 하는데 이 다섯 가지 보병(寶瓶)에 청정한 불을 가득 채워 모든 중생(衆生)의 본래 청정한 마음 가운데서 빛기 위한 것이라 한다.<sup>6)</sup>

(3) 5곡(穀)—5곡(穀)의 씨앗을 다섯알씩 넣는다.

5곡(穀)이란 벼, 보리, 녹두, 마자(麻子), 직(稷)을 말하고 이는 길러내는 보제(菩提)의 싹을 낸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한다. 5지보제(智菩提)의 싹을 낸다고 한다.<sup>7)</sup>

4) 『造像經』 「腹藏諸物解釋分齊二科說」

5) 前掲註

6) 前掲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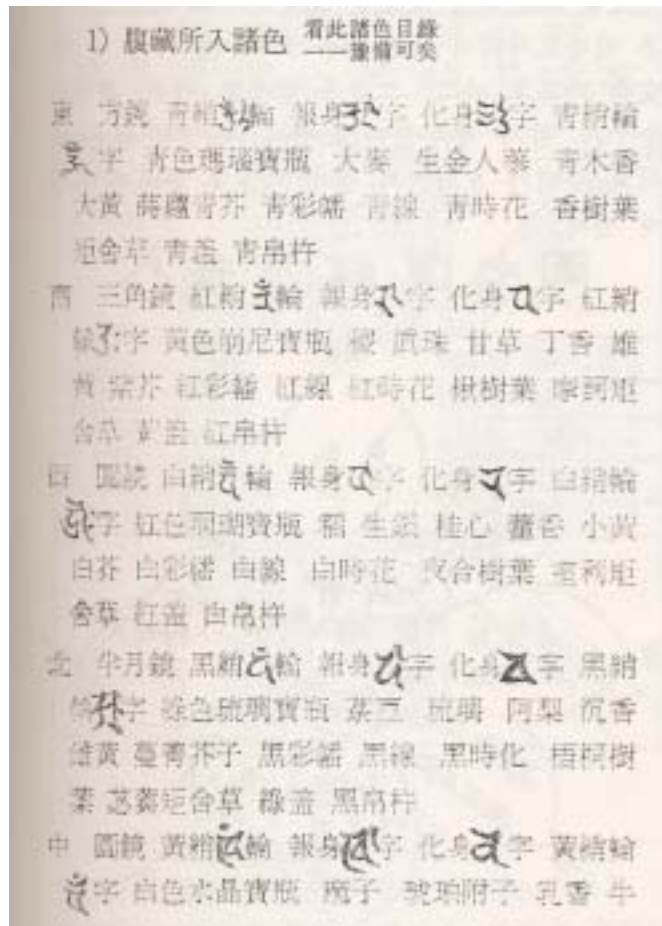
7) 前掲註

(4) 5향(香)—청목향(靑木香), 정향(丁香), 곽향(藿香), 침향(沉香), 유향(乳香)을 넣는데 보통 향(香)나무를 다섯 조각 잘라 넣는다. 5향(香)은 불(佛)의 다섯 가지 향기를 표하는 것이라 하는데 불향(佛香), 법향(法香), 보향(寶香), 갈마향(羯摩香), 지향(智香)이 그것이다. 한편 5분법신(分法身)의 계향(戒香), 혜향(慧香), 정향(定香), 해향(解香), 지견해탈향(知見解脫香)을 뜻하기도 한다.

(5) 5락(樂)—인삼(人蔘), 감초(甘草), 계심(桂心), 아리(阿梨), 복자(附子) 등을 넣는데 이는 다섯 가지 병을 다스린다는 의미이다.

이외(以外)에도 5길상초(吉祥草), 5산개(傘蓋), 5륜종자금(輪種子金), 은(銀), 진주(眞珠), 유리, 호박 등의 5보(寶) 등을 넣게 되나 아래에서는 이들 복장품(腹藏品)의 목록(目錄)을 먼저 살펴보고 이어 반드시 들어가야 할 품목(品目)과 그를 넣는 방법(方法), 규격 등에 대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복장소입제색(腹藏所入諸色) 간차제색목록(看此諸色目錄)  
일일예비가의(一一豫備可矣)



黃 黃芥 黃彩幡 黃線黃時花 檀樹葉 悉黨矩舍草 白蓋 黃帛袴

2) 복장중인품목 및 그 규모(腹藏重要品目 및 그 規模)

위에서는 복장(腹藏)의 품목(品目)을 밝혔으니 이것은 목록(目錄)을 넣는 것으로 그들은 모두 넣었다는 상징적 의미를 나타내게 하고 있다. 다음에는 실제 복장(腹藏)에 넣는 물품(物品)과 그 넣는 방법(方法)에 대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일절여래전신사리보현진언(一切如來全身舍利普賢眞言)

흰비단에 금(金)물로 「나모(娜謨) 실저리세지미(悉底哩世地尾) 가남(迦喃) 살□구박달타(薩□口縛怛타)」 등의 다라니를 쓴다.

(2) 범서(梵書)약간

생지(生紙)에다 범서(梵書) 약간을 써서 불상복장(佛像腹藏)안에 꼭 차게 채운다.

(3) 양면원경(兩面圓鏡)

두 개에서 한 개는 통 안의 5병(瓶)밑에 봉안하고, 하나는 5통(筒)의 입구(入口)에 봉안한다.

(4) 5색선(色線)

길이 10척(尺)의 오색실을 색에 따라 5병(瓶)의 입에 매고 끝을 함해 하나로 만든다. 그리고 후령통(喉鈴筒)의 팔엽개(八葉蓋) 입구로 나오게 한다. 또한 팔엽개(八葉蓋)의 대련화(大蓮華)의 중앙(中央)을 뚫고 또한 천원(天圓)의 중앙을 뚫는다. 이것이 끝나면 누른 비단 보자기 밖으로 나오게 하여 가로 세로로 두루 묶은 다음 준제주(准提呪)를 세로 속에 범인주(法印呪)를 가로로 함봉하고 증명인 누가 삼가 봉안한다고 한다.

(6) 황소폭자(黃소幅子, 누른비단 보자기)

사방(四方) 1자 5치의 보자기로 한다.

(7) 원문(發願文)

푸른 비단에 붉은 글씨로 증명(證明)한 모든 승려(僧侶) 불상(佛像)등을 조상(造像)한 사람, 도운사람, 신도(信徒) 연화(緣化)를 보고, 듣고 따라 기뻐하여 도운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쓴다.

(8) 사리(舍利) 7립(粒)

사리(舍利) 7립(粒)을 봉안하되 만약 사리(舍利)가 없으면 수정(水晶) 유리같은 보석으로 대용하여도 무방하다.

(9) 사리함(舍利盒)

둥글게 2, 3 푼쯤으로 만들고 또한 팔엽개(八葉蓋)를 갖춘다.

(10) 후령통

팔엽개(八葉蓋)를 갖춘 통(筒)이다. 팔엽개(八葉蓋)의 중앙(中央)에 후혈(喉穴)을 통하게 하고 있어 후령통(喉鈴筒)이라 한다. 통(筒)의 체형(體形)은 5병(瓶)을 용납할 정도로 만든

다. 불상(佛像)의 복장(腹藏)에는 원통(圓筒)을 쓰고 불화(佛畵)에서는 방통(方筒)을 쓴다. 통(筒)의 사면(四面)에는 사방주(四方呪)를 써서 사방(四方)을 표시한다. 통(筒)의 덮개는 방위를 따라 진심종자(眞心種子)를 쓰되 방위에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

(11) 사방주(四方呪)

통밖에 쓴다. 동일아 남일마 서일라 북일사(東一阿 南一摩 西一羅 北一詞)

(12) 팔엽대홍연주(八葉大紅蓮呪)

연꽃의 팔엽(八葉)마다 홍연주(紅蓮呪)를 쓴다.(도판 1) 후령통의 덮개로 쓴다.

(13) 천원(天圓)

준제(准提)의 글자를 배열한다.(도면 2)

(14) 지방(地方)

수호(守護)의 의미를 지닌 금강(金剛)을 나열한 圖面이다. (도면 3)

천원(天圓)은 하늘을 덮는다는 의미이고 지방(地方)은 땅을 신는다는 의미이다. 천원지방(天圓地方)의 도면을 그려 넣는다.

(15) 5륜종자(五輪種子)

동(東)-암(暗)   남(南)-람(覽)   서(西)-만(鋤)   북(北)-함(哈)   중(中)-감(坎)

5색(色) 비단실로 방향색(方向色)을 따라 5륜형(輪形)을 만들고 붉은 글씨고 각각 한글자씩 쓴다. 또 흰비단으로 따로 하나의 원륜(圓輪)을 만들어 5륜자(輪子)를 방륜(方輪)에 따라 원륜내(圓輪內)에 붙인다. 그런 후 통 안에 넣는데 이때 반드시 흠어지거나 뒤섞이지 않도록 한다.(圖面 4)

(16) 보신주(報身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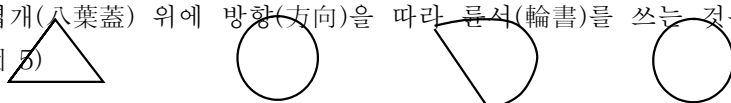
흰비단에 원륜(圓輪)을 만들고 방륜(方輪)을 따라 다섯 글자를 쓴다.

(17) 여상보신주(如上報身呪)

위의 보신주(報身呪)와 같이 한다.

(18) 진심종자(眞心種子)

5색비단에 방향색(方向色)을 따라 5륜원(輪圓)을 만들고 붉은 색(色)으로 한 글자씩 쓴다. 또 후령통(喉鈴筒)의 팔엽개(八葉蓋) 위에 방향(方向)을 따라 륜서(輪書)를 쓰는 것은 오륜종자(五輪種子)와 같다.(圖 5)



(19) 5방경(方鏡)

만약 금(金)이나 은(銀)이 없으면 좋은 종이를 대신 만든다. 사방경(四方鏡)은 통(筒)밖에 방향(方向)을 따라서 걸고(붙인다) 중방경(中方鏡)은 통(筒)밑에 봉안한다.

(20) 5방병(方瓶)

5방병(方瓶)은 7보(寶)로 만들되 만약 7보(寶)가 없으면 5색(色) 종이를 대신 만든다. 크기는 높이 2치반 정도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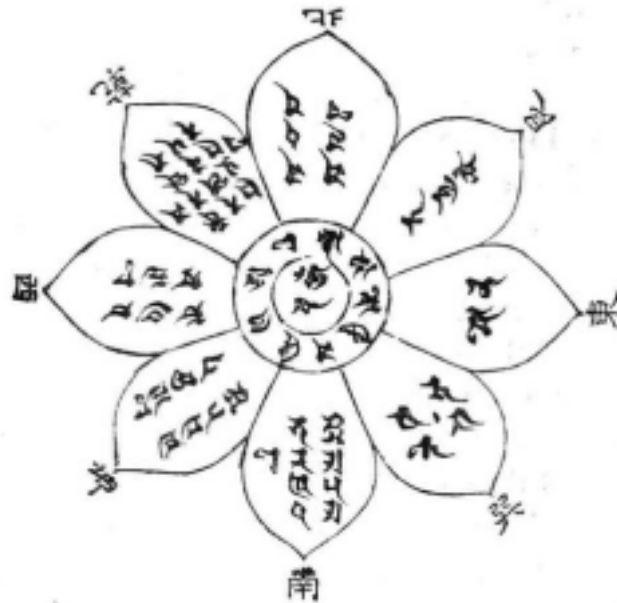
(21) 칠구지불모심대준제다라니(七俱胝佛母心大准提陀羅尼)

「옴 자 례 주 례 준제 사바 하」의 준제주(准提呪)를 붉게 2건(件)을 쓴다. 1건(件)은 룰서(輪書)로 배열하여 후령통(喉鈴筒)안에 붙인다. 또 한 건(件)은 누른 비단보자기에 쓴 후에 우선 이 주문(呪文)을 보자기에 쓴다. 주문(呪文)의 밑은 크고 작기가 들어맞는 보자기의 몸을 한바퀴쯤 두르게 하면 된다.(圖 6)

(22) 문수보살법인능소정엽다라니(文殊菩薩法印能消定葉陀羅尼)

다라니집 제 6권에서는 무엇을 간직한 뒤에 이 주문(呪文)을 인봉(印封)하면 정엽(定葉)을 소멸한다고 하였다. 누른 비단보자기에 복장물을 모두 산 뒤에 이 주문(呪文)을 가로로 싸고, 그것을 함봉한 면에 증명(證明)인 누구가 삼가 봉안한다고 쓴다. 주문(呪文)의 밑은 넓이와 길이가 보자기의 몸에 맞도록 한바퀴 두르게 한다.

圖之蓮紅大葉八



<圖 1>

<도 1>

圖之圓天字九提准



5  
<圖 2>

<도 2>

圖之方地剛金列  
經像造從今異稍本他有



5  
<圖 3>

<도 3>

(23) 불경류(佛經類)

불법(佛法)을 불상(佛像)속에 가득 차게 한다는 의미로 각종(各種) 경전(經典)을 넣기도 한다. 경전은 법화경(法華經) 화엄경(華嚴經) 금강경(金剛經) 기타의 경전들이다.



앞에서 범자(梵字)를 많이 써서 불상(佛像) 복장(腹藏)을 채우게 한 것과 같은 뜻으로 각종경전(各種經典)을 넣는다.

(24) 무공수정주(無孔水晶珠)

수정(水晶)으로 된 구슬 하나를 심주(心珠)로 삼기 위하여 넣는다. 직경 1cm정도로 사리(舍利)로 오인되는 경우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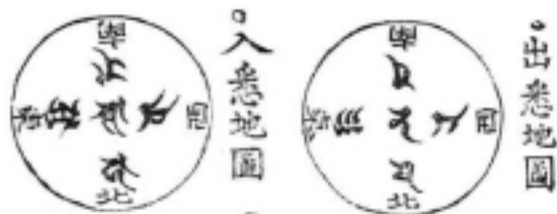


五  
<圖 4>

<도 4>



眞心種子圖



五  
<圖 5>

<도 5>



<도 6>

### 3. 복장품(腹藏品)을 넣는 절차(節次)

이상의 복장품(腹藏品)은 그저 아무렇게나 하여 불상(佛像)이나 불화(佛畫)의 복장에 넣는 것이 아니라 정연한 의식절차(儀式節次)와 넣는 순서에 따라 넣게 된다.

우선 복장품이 준비되어지면 고승(高僧) 다섯 명을 택하여 5방법사(方法師)로 삼고 복장진언(腹藏眞言)을 잘 외우는 고승 2, 3명으로 선주법사(禪呪法師)로 삼아 도장(道場)을 정결하게 한 다음 의식(儀式)의 단법(壇法)을 정숙하게 한다. 아도리(阿闍梨)는<sup>8)</sup> 길상초(吉祥草)를 단(壇)가운데 11위(位)로 봉안하되 먼저 8방초(芳草)를 봉안하여 점점 동쪽으로 향하게 하고 다음 8방초 사이에 3위(位)를 봉안하여 점점 불신(佛身)으로 향하게 한다. 아도리(阿闍梨)는 길상초(吉祥草)로 모든 불제자(佛弟子)들의 몸에 향수(香水)를 뿌려 도장(道場)에 들어가게 하고 또한 단(壇)가운데 모든 물건(物件)에도 뿌려 정방(淨方)을 결성하고 번뇌의 더러움을 없애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고 복장(腹藏)을 넣는 의식(儀式)을 행하는데 각 품목(品目)마다 물을 뿌리고 관정(灌頂)하고 나서 송주법사(誦呪法師)가 각종진언(眞言)을 독송한다. 예(例)컨대 5보(寶)를 복장(腹藏)에 넣으려 하면 아도리(阿闍梨)는 이 5보(寶)를 먼저 한 그릇에 담고 물을 뿌리고 관정(灌頂)한다. 그러면 이어 송주법사(誦呪法師)가 보생불진언(寶生佛眞言)과 보생과라보살진언(寶生波羅菩薩眞言) 등을 각각 108번 득송하고 가지(加持)한다. 모든 복장물품(腹藏物品)은 이렇게 아도리(阿闍梨)에 의한 관정송주법사(灌頂誦呪法師)에 의한 송주(誦呪)를 거쳐 의미가 부여되어진 이후 복장 속에 넣게 된다.

이상과 같이 하여 신앙적(信仰的)인 의미(意味)가 부여된 각종(各種) 복장물(腹藏物)은 다음과 같은 차례로 불상(佛像)이나 불화(佛畫)의 복장(腹藏)시설 내에 봉안(奉安)한다.

우선 모든 복장물(腹藏物)은 후령통(喉鈴筒)에 넣고 주령통(呪鈴筒)은 또한 황초폭자(黃納幅子, 누른 비단보자기)로 싸여진다. 그리고 누른 비단보자기에 쌓여진 후령통(喉鈴筒)을 불상(佛像)이나 불화(佛畫)의 복장(腹藏)시설내부에 넣게 된다.

#### (1) 후령통(喉鈴筒)안에 복장물(腹藏物)을 넣는 차례

8) 『佛像經』 「腹藏壇衆會議」

먼저 5륜종자(輪種子)를 넣고 다음에 진심종자(眞心種子)를 넣는다. 그 다음에 보신주(報身呪)를 넣고 다음에 화신주(化身呪)를 넣는다. 그리고 준제주(准提呪)를 넣는다. 이어 양면(兩面) 원경(圓鏡)을 넣고 5보병(寶瓶)을 넣는다. 다음으로 사리(舍利)7립(粒)이 든 사리합(舍利盒)을 넣는다. 다음으로는 무공심주(無孔心珠) 1개를 넣는다. 다음에는 양면원경(兩面圓鏡)을 5병(瓶) 입구에 덮고 그 병(瓶)입에 맨 5색(色)실을 합하여 통(筒)의 덮개에서 뽑아낸다. 다음에는 통(筒)의 덮개를 덮고, 통(筒)밑에 중방원경(中方圓鏡)을 안립한다. 다음에는 지방(地方)으로 통(筒)을 싸는데 방위(方位)를 잘 살펴야 한다. 다음에는 팔엽연(八葉蓮)으로 천원(天圓)을 위로 향하게 하고 아래로 덮어 5색(色)실로 연화(蓮華) 천원(天圓)의 위를 뚫고 천원(天圓)으로는 지방(地方)의 외부(外部)를 싸서 하늘이 땅의 밖을 싸게 한다. 그리고 나중에 황초폭자(黃綃幅子, 누른 비단보자기)로 싸다.

## (2) 황초폭자(黃綃幅子)에 싸는 차례

황초폭자(黃綃幅子)안에는 먼저 원문(願文)(발원문, 發願文)을 넣고 그 다음에 보협주(寶篋呪)를 넣는다.(보자기를 펴놓은 상태에서 말하면 보자기 위에 놓는 것이다). 다음에는 천원(天圓) 지방(地方)으로 쌓여진 후령통(喉鈴筒)을 그 보자기 위에 넣고 보자기를 싼다. 보자기를 싼 때에는 보자기의 끝과 5색(色)실을 합하여 빙 둘러 배후에서 묶는다. 그리고는 오색실을 반쯤 돌려 세로로 싼다. 또한 반쯤 돌려 가로로 싼다. 그렇게 하여 실이 다하고 나면 준제주(准提呪)를 세로로 봉(封)하고 법인주(法印呪)를 가로로 봉(封)하여 남면(南面)에 다가 증명(證明)인 ○○○ 삼가 봉한다고 쓴다. 그리고 이렇게 봉함된 것을 의식단(儀式壇) 위에 올리면 송주법사(誦呪法師)가 부동존진언(不動尊眞言)을 108번 독송한다. 그리고 가지(加持)의례를 한 이후<sup>9)</sup> 불상(佛像)이나 불화(佛畫)의 복장 속에 넣어 불상(佛像)의 경우에는 똑바로 불상(佛像) 배꼽 있는데 쪽 바르게 세우고 범서(梵書)나 각종(各種) 경전(經典)의 불서(佛書)를 상하(上下) 좌우(左右)에 가득 채워 기울거나 숙여지지 않도록 한다.

불화(佛畫)의 경우에는 복장(腹藏)주머니를 별도로 만들어 그 속에 넣도록 한다.

## 三. 복장의 의미(腹藏의 意味)

불상(佛像) 불화(佛畫)등의 불교미술작품(佛敎美術作品)은 처음부터 작품(作品)을 제작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신앙(信仰)의 대상으로 또는 예배의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이지만 그 양식(樣式)이 미술작품(美術作品)과 공통적(共通的)인 것이 많아 이를 우리는 불교미술(佛敎美術)이라 하게 된 것이다.<sup>10)</sup> 그런데 여기 불교미술작품(佛敎美術作品)에 있어 복장(腹藏)이란 불교미술작품(佛敎美術作品)을 미술작품(美術作品)으로만 생각하게 하지 않고 신앙(信仰)의 대상으로 삼게 하는 상징적 의미(意味)를 부여하게 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조상경(造像經)은 불상(佛像) 등에 복장물(腹藏物)을 넣게 되는 이유(理由)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sup>11)</sup>

「대저 물(物)이란 것은 사(事)이다. 역(易)에는 말하기를 통(通)하고 변(變)함을 사(事)라 한다고 하였다. 때문에 통하고 변하는 것은 이(理)이며 사(事)가 행하는 곳엔 이(理)는 본래

9) 前掲註

10) 洪潤植 『韓國의 佛敎美術』, 大圓精舍 1986, pp.10~13,

11) 『造像經』 「腹藏諸物解釋分齊二科說」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事)는 이(理)를 얻어 융합하고 이(理)는 사(事)를 따라 변한다. 오직 절대 영지(靈地)인 마음과 법신향상(法身向上)의 이치 외에는 천하에 사(事)를 버리고 홀로 존재(存在)하는 이(理)나 이(理)를 버리고 스스로 이루는 사(事)가 어찌 있겠는가. 대개 불상(佛像)을 시설하는 법(法)이 사(事)에 지나치게 가까운 듯도 하나 그 가운데엔 스스로 이(理)가 있어 사문(事門)에 두루하고 사(事)는 이문(理門)에 두루하는 것이다. 선현(先賢)은 이 복장(腹藏)하는 물건(物件)들을 보고 혹 후세 사람들이 사(事)에 집착하여 이(理)를 잃을까 염려하여 먼저 이치를 잡아 해석하고 다음 사(事)의 한계를 들어 이(理)와 사(事)가 걸립 없는 도리를 밝혔다. 아래의 문장에서와 같이 복장(腹藏)에 들어가는 모든 물건(物件)으로부터 끝의 5산개(傘蓋) 금강재(金剛材)에 이르기까지가 총체적으로 사(事)의 한계를 밝힌 것이다. 위의 문장에서 복장단의식(腹藏壇儀式)으로부터 복장(腹藏)에 들어가는 모든 물건 이상은 즉(卽) 이치(理致)를 잡아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그 이치적인 면을 빠트리고 생략함이 있어 아래의 경문(經文)을 인용한다」 하고 많은 경문(經文)을 인용하여 불상(佛像)의 조상(造像)이 갖는 의미와 불상(佛像)이 불상(佛像)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복장(腹藏)을 지녀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sup>12)</sup> 말하자면 불상(佛像)이 조성(造成)된 원래의 참뜻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다시 조상경(造像經)은 여러 경전(經典)을 인용(引用)하며 조상(造像)의 공덕(功德)을 밝혀 불상조성(佛像造成)의 참뜻을 재삼 밝히려 하고 있다. 그 몇 가지 예(例)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sup>13)</sup>

조상공덕경(造像功德經)에 이르기를

「제석천이 불타(佛陀)에게 이르기를 도솔천에 올라가 여름 석달을 보내면서 어머니인 마야부인을 위해 설범해 줄 것을 청하니 불타(佛陀)가 그렇게 하였다. 그 때에 우진왕(優填王)이 불타(佛陀)를 그리워하여 목마르게 우러러 보았으나 뵈수가 없어 그 나라안의 훌륭한 장인(匠人)에게 부처의 형상을 조성케하여 예배하고 공경하러 하였다.」

여기서 보면 불상(佛像)은 그리워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다하여 조성되는 것임을 항 수 있게 된다. 한편 다시 관불삼매경(觀佛三昧經)에서는 말하기를

「부처가 도리천상에 오른 지 이미 오래되었을 때 우전왕은 연모함을 이기지 못하여 쇠를 녹여 불상(佛像)을 만들었다. 부처께서 내려올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상(像)을 싣고 우러러 모시기를 마치 살아 계신 부처와 같이 하였다. 그러자 부처가 허공을 걸어 쌍으로 된 연꽃을 밟을 때마다 큰 광명을 놓는 것을 멀리서 보게 되었다.」

고 한다. 그리고 제경요집(諸經要集)에서는 말하기를

「만약 불상(佛像)을 만드는 사람이 상호(相好)를 구축하지 않게 한다면 5백만세중에 제근(諸根)을 구비하지 못하리니 제일의 마음 씩씩이가 상묘(上妙)한 과가 된다고 하고 또한 불상(佛像)을 흠친 자가 청정하게 공양하고 스스로 생각하여 그도 또한 제자요 나도 또한 제자입니다 하면 이런 사람은 비록 말을 안하고 불상을 흠쳐 공양하지만 계(戒)를 범한 것이 아니다.」

하고 있다. 결국 불상(佛像)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은 물(物)로서의 불상(佛像)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불상(佛像)을 생각하는 마음에 있는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단하소불(丹霞 燒佛)의 고사(故事)는 이를 좀 더 단적으로 전(傳)해주고 있어 주목(注目)된다. 즉

「단하선사(丹霞禪師)가 혜림사(慧林寺)에서 거처하며 추운 겨울 지나게 되었는데 잘 때

12) 前掲註

13) 『造像經』 「大藏一覽經造像品 15則」

몹시 추워 목불(木佛)을 가져다 불태워 버렸다. 이에 원주승(院主僧)이 그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말하자 선사(禪師)는 내가 목불(木佛)을 태워 사리(舍利)를 얻으려 한다고 하였다. 원주승(院主僧)이 다시 말하기를 나무로 된 머리에 어찌 사리가 있겠는가 하자 선사(禪師)는 다시 사리(舍利)가 없다면 나머지 목불(木佛)도 모두 태우겠다.」

고 하여 대중승(大衆僧)을 놀라게 하였다는 고사(故事)이다. 이 고사(故事)야 말로 불상(佛像)에 대한 물적(物的)인 의미를 배격하고 정신적(精神的) 의미를 강조한 것이란 데서 형식(型式)을 멀리하는 선종(禪宗)에서 불상관(佛像觀)으로 중요시하게 되었다.

이상(以上) 경문(經文)을 인용(引用)하여 조상경(造像經)은 불상(佛像) 조상(造像)의 유래(由來) 공덕(功德)등에 대하여 소상히 밝히고 있는데 그에 앞서 조상(造像)의 편찬자는 비천한 의견을 약술한다고 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복장(腹藏)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sup>14)</sup>

「이 책의 찬집의 관찰해 보니 여러 본(本)의 제경(諸經)으로 성지(聖旨)가 한자리 완전한 문장이 아니라 대장일람(大藏一覽)을 인용(引用)하였으니 대충 이 편집은 근세(近世)에 나온 것이요, 옛날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교중(教中)에 이른바 법의(法義)인 인과(因果)와 신행수증(信行修證)의 취지에서는 자연스럽게 들어맞는다. 이 뜻은 무엇인가 무릇 이 경문의 십오칙(則) 중 처음에 조상(造像)의 연유를 밝힌 것은 전법(傳法)의 유래(由來)가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며, 나머지 모두 조상의 공덕을 증신(證信)한 것은 영험이 진실하며 헛되지 않음을 밝힌 것이니 이는 신법(信法)이다. 복장단의식(腹藏壇儀式)에서 5경(鏡) 5산개(傘蓋) 등의 해석에 이르기까지는 사(事)에 즉(卽)하여 이(理)를 밝힌 것이니 이는 해의(解義)이다. 복장(腹藏)에 들어가는 모든 물건(物件)은 묘길산대교주경중(妙吉祥大教王經)중에서 밝히고 있는 5병(瓶) 5산개(傘蓋) 5금강재(金剛材) 등으로 많이 나누고 있는데 이는 이(理)에 의지하여 사(事)를 성취하는 것이니 이것은 수행(修行)이다.

부동존주(不動尊呪)로부터 점안구경(點眼究竟)의 법(法)까지는 이(理)와 사(事)가 원융한 종극(終極)의 도(道)이며 이는 증과(證果)가 된다. 한 경(經)의 시종본말(始終本末)이 이와 같다.」고 하고 있음이 그것이다. 여기서 보면 불상(佛像)은 단순한 물(物)로서의 의미(意味) 뿐 아니라 정신적(精神的) 의미를 이에 부여하지 않으면 안되고 또한 정신적 의미만 강조하였지, 그를 표현(表現)할만한 양식(樣式)을 갖추지 않으면 안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결국 이를 이(理)와 사(事)의 원융(圓融)이라고 하지만 이를 불교미술(佛教美術)의 측면(側面)에서 말하면 불교미술(佛教美術)이란 사(事)로서의 양식적(樣式的)인 면(面)만 강조되어서도 안되고, 한편 이(理)로서의 의미만 강조되어서도 안되는 양식(樣式)을 있게 한 이(理) 또는 그 이(理)가 양식화(樣式化) 되어지는 상호(相互) 원융(圓融)한 양면(兩面)을 살피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결국 불상(佛像), 불화(佛畵) 등에 있어 복장물(腹藏物)의 이입(移入)이 갖는 의미는 불상(佛像) 등이 단순한 물(物)이 아닌 정신적(精神的) 의미(意味)를 지니고 있다고 하는 상징작용이라 할 수 있다. 즉(卽) 불상(佛像) 불화(佛畵) 등은 단순한 물건(物件)도 아니며 또한 단순한 감상의 대상만도 아니라 오직 불(佛)은 전지전능(全知全能)한 존재(存在)로서 5지(智)를 지니며 길러내는 힘을 지닌다. 향기(香氣)를 지녀 전 우주에 가득차게 하고 능히 모든 병환을 다스린다. 복장(腹藏)은 이 같은 불상(佛像)이 지니는 의미를 5경(鏡) 5보병(寶瓶) 5곡(穀) 5약(藥) 등의 물건(物件)을 불상(佛像)속에 넣어 상징적 의미를 갖게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불교미술(佛教美術)에 있어 복장(腹藏)이란 불교미술(佛教美術)을 단순한 감상의 대상만이 아니 예배(禮拜)의 대상이 되게 하는 의미를 지니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4) 『造像經』 「略述鄙意」

그리하여 복장물(腹藏物)을 불상(佛像)이나 불화(佛畵)등에 이입(移入)할 때에는 정중한 의례행위(儀禮行爲)를 수반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卽) 복장(腹藏)은 복장물(腹藏物)을 이입(移入)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중한 의례행위(儀禮行爲)를 행(行)하고 이입(移入)하므로써 비로소 상징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 복장물(腹藏物)의 제품목(諸品目)과 복장단의식(腹藏壇儀式)에 대한 절차(節次)를 조상경(造像經)은 소상하게 밝히고 있지만 이를 불교(佛敎) 교리상(敎理上)의 의미(意味)에서 보면 밀교적(密敎的) 성격(性格)이 강한 것이란 사실(事實)을 주목(注目)할 필요(必要)가 있다.<sup>15)</sup>

즉(卽) 5방(方) 5색(色) 등이 그러하고 5륜종자(輪種子) 기타의 다라니(陀羅尼) 등을 복장물(腹藏物)로 삼고 있음이 모두 그를 일러주고 있는 셈이다.

#### 四. 사리탑(舍利塔)의 사리(舍利)장치와 불상(佛像)의 복장(腹藏)

얼핏 생각하면 사리탑(舍利塔)에 있어 사리(舍利)장치나 불상(佛像) 불화(佛畵)에 있어 복장(腹藏)이 같은 성격의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왜냐하면 양자(兩者)가 모두 사리(舍利)를 장치하고 또한 사리(舍利)를 장치하기 때문에 사리를 담은 사리용기(舍利容器)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그런 면(面)에서 보면 분명히 그러하다. 그러나 불탑(佛塔)에 있어 사리(舍利)장치는 불탑(佛塔)에 선행(先行)하고 불상(佛像) 불화(佛畵)에 있어 복장(腹藏)은 불상(佛像)등에 후행(後行)하는 것이란 사실(事實)을 주목(注目)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卽) 불탑(佛塔)은 불사리(佛舍利)를 위한 시설물(施設物)이지만 불상(佛像)은 불사리(佛舍利)를 위한 시설물(施設物)이 아니란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불탑(佛塔)에 있어서는 사리(舍利)가 주(主)이고 불탑(佛塔)이 종(從)인 것이라 할 수 있다면 불상(佛像)에 있어 복장(腹藏)으로서의 사리(舍利)는 불상(佛像)이 주(主)이고 사리(舍利)는 종(從)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사리(舍利)장치를 갖고 말하면 불탑(佛塔) 내(內)의 사리(舍利)장치가 불상(佛像) 내(內)복장(腹藏)의 사리(舍利)장치보다 훨씬 장엄하고 훌륭하게 잘 구성되어진다. 즉(卽) 사리병(舍利瓶) 사리함(舍利盒)등의 불탑(佛塔) 내(內)에서 발견(發見)되어지는 것은 훌륭한 작품(作品)이 많은데 비(比)하여 불상(佛像) 내(內)의 것은 그렇지 못한 것이 바로 그를 일러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불탑(佛塔) 내(內) 사리(舍利)장치와 불상(佛像) 내(內)의 복장(腹藏)이 이상과 같이 성격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사리(舍利)를 안치하는 방식(方式)도 다르게 하고 있다. 즉(卽) 불탑(佛塔) 내(內)의 사리(舍利)는 장엄한 사리용기(舍利容器)를 필요(必要)로 하지만 불상(佛像) 내(內)의 복장(腹藏)으로서의 사리(舍利)는 상징적 의미가 더 중요한 것으로 장엄한 용기(容器)를 필요(必要)로 하지 않는다. 조그마한 사리함(舍利盒)에 넣어 다시 후령통(喉鈴筒)에 넣을 따름이다. 후령통(喉鈴筒)이 외함의 성격을 지니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도 아니다. 왜냐하면 후령통(喉鈴筒)은 사리함(舍利盒) 이외의 다른 복장물(腹藏物)도 동시(同時)에 넣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가지 의문으로 남는 것은 후령통(喉鈴筒)은 불상(佛像)이나 불화(佛畵)에 있어 복장시설(腹藏施設)의 하나이다. 그런데 사리탑(舍利塔)의 시설(施設)에서 후령통(喉鈴筒)이 나왔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이다. 즉(卽) 지난번 도굴되었던 건봉사(乾鳳寺) 사리탑(舍利塔) 내(內)에서 발견(發見)되었다는 사리함(舍利盒)으로 이해되어졌던 후령통(喉鈴筒)이 바로 그 일례(一例)를 남기고 있는 것이다.<sup>16)</sup>

15) 洪潤植 「朝鮮時代 眞言集의 刊行과 儀式의 密敎化」 『韓國密敎思想研究』 東國大學校 佛敎文化研究員 1986.

16) 乾鳳寺 舍利塔內의 舍利容器로 알려진 것 중에는 金 銀 銅盒 以外的 喉鈴筒이 있었음이 그것이다.

## 五. 결어(結語)

불상(佛像)이나 불화(佛畵)는 반드시 복장물(腹藏物)을 지닌다. 그것은 불상(佛像)이나 불화(佛畵)가 단순한 감상의 대상이 아닌 예배(禮拜)의 대상으로 삼게 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복장물(腹藏物)은 불탑(佛塔)에 있어 사리(舍利)장치와는 구분(區分)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불탑(佛塔)에 있어 사리(舍利)장치는 불탑(佛塔)에 선행(先行)하는 의미를 지니지만 불상(佛像)에 있어 복장(腹藏)은 불상(佛像)에 선행(先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장치물의 성격도 다르고 조형미(造形美)에 있어서는 불탑(佛塔) 내(內) 사리(舍利)장치가 단연 우수성을 차지한다. 이에 비하여 불상(佛像) 불화 내(佛畵內)의 복장물(腹藏物)은 조형미(造形美)보다는 상징성에 더욱 강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임을 알게 된다. 그런데 여기 상징성이란 밀교(密敎)의 교리(敎理)에서 이해되어지는 상징성임을 아울러 이해하여야만 한다.

간혹 불탑(佛塔) 내(內)의 사리(舍利)장치나 불상(佛像) 내(內)의 복장(腹藏)에서 가사(袈裟)가 발견(發見)되었다는 보고(報告)를 접(接)하기도 하지만 사리(舍利)장치나 복장물(腹藏物)에 가사(袈裟)는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밀교적(密敎的) 의미를 지니는 황색(黃色)의 폭자(幅子)가 있을 따름이다. 간혹 의복이 발견(發見)되기도 하나 이는 그 의복에 다라니(陀羅尼)를 써 넣었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의복은 개인의 신심(信心)을 나타낸 데 지나지 않는다. 어떻든 사리(舍利)장치나 복장(腹藏)은 엄연한 의궤(儀軌)에 따라 이입(移入)하고 있다는 사실(事實)을 잊어서는 안되며, 따라서 앞으로의 복장물(腹藏物)에 대한 조사(調査)는 의궤(儀軌)에 따른 종합적(綜合的) 조사가 필요(必要)하다는 사실(事實)을 끝으로 밝혀 두고자 한다.